

# '2차 피해예방 시스템' 건의

### 정현을 익산 시장, 국힘 김기현 대표에 농산물재해보험금 현실화 등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25일 수해 피해 복구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보상 현실화를 요청했다.

특히,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복전 조속 복구, 지역 배수 확대, 붕괴 우려 난포교 재가설 등 강화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익산시 망성면 피해 현장과 주민 대피소 등을 찾아 심각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0여명과 함께 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된 비닐하우스를 정리, 재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수해현장에서 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전국 4번째 쌀 생산지인 익산시 농가 60% 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어 농업재해 의미마저 상실한 상태"라며 "2차피해 차단과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

했다. 현재까지 도로, 농업기반, 하천제방은 물론 주택침수 187건, 농경지 침수 5,010ha, 30여만 마리 가축폐사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사에 필요한 관리기, 트랙터, 열풍기, 양수기 등 1만천여대 농기계가 침수되어 수리조차 어렵고 재해보상 대상에도 빠져 막대한 상태다.

정 시장은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민피해액 최대 반영과 신속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현실화와 영농 장비에 대한 무상수리, 수확시기와 생산비를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현실화를 건의했다. 농사 현장을 수습하고 영농에 복구할 상시교통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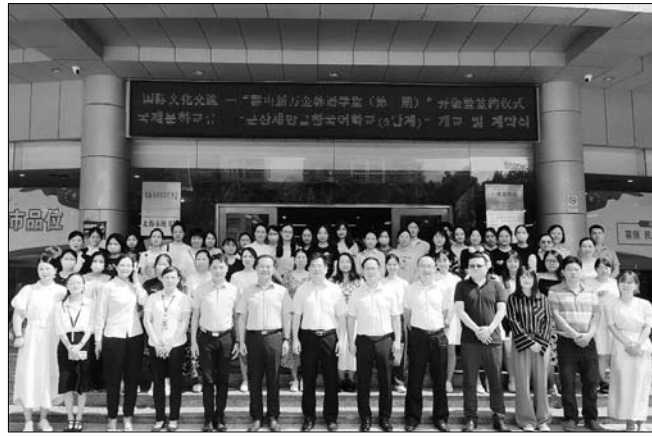
또한 제2의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의 재해위험시설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산복전 제방 복구지원, 망성면 용동

면 지역의 배수로 확장과 배수량 증설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복전 수위가 높아졌을 때 교량 붕괴위험이 있고 폭우시 교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구간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방도 706호선 용안면 난포교 재가설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식량안보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 현실성 있는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이제는 일상화가 돼 버린 기상이변 외에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재난 대비 및 근본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중국사무소는 지난 22일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 베이하이시 도서관에서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 개강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중국 베이하이시에 군산을 알리다

### 군산시 중국사무소, 올해 두 번째 '군산새만금 문화학당' 개강

군산시 중국사무소는 지난 22일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 베이하이시 도서관에서 '군산새만금 문화학당' 개강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베이하이시 및 베이하이시 도서관 관계자를 비롯해 군산시 중국사무소와 50여 명의 베이하이시 문화학당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 그리고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인들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K-영화, K-드라마 등의 분야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은 지난 2014

년 칭다오시(靑島)에서 시작한 이후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 중국사무소 사업으로, 중국 내 친(親) 군산 네트워크 확보와 중국에 군산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엔타이시(烟台) 등 8개 도시에서 총 28회 개강과 1,300여 명이 수강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베이하이 시민들이 군산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문화학당에 직접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와 군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재춘기자

## 익산시, 벼 병해충 공동약제 긴급추가 2차 방제

익산시는 기록적인 폭우 이후 벼 병해충 방제에 쌀 수확량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시는 비가 그친 지난 1차 긴급 공동방제 지원에 이어 2차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제비를 긴급 지원한다.

집중호우 이후 벼 병해충 발생 증가로 쌀 수확량 감소에 대비해 비가 그치면 바로 1차 방제를 실시하고 벼 이삭이 한 두개 물러왔을 때 2차 방제를 해야한다.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별도 신청없이 추가 지원하며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이달 2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지원 금액은 1ha당 5만원(1ha 방제약 준비의 50%)을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방제약제를 구입할 수 있는 교환권을

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자와 2차 추가신청자 중 지역농협에 위탁방제를 선택한 농업인은 교환권을 별도로 수령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지역농협에 추가 방제를 의뢰하면 된다.

1차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자와 2차 추가신청자 중 자기방제를 선택한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교환권으로 지역농협 또는 농약사에서 약제를 구입한 후 자기방제를 하면 된다.

벼 병해충 방제약제 교환권 지급은 이달 말 전후로 농업인에게 개별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벼 병해충 방제를 반드시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관광객 ·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한여름밤의 뮤직콘서트

### 군산시, 선유도 노을 뮤직페스티벌 개최

군산시는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선유도 노을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신선이 노닐던 아름다운 섬, 선유도 해수욕장은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공중하강체험 시설인 선유스카이리프트, 구불길, 그리고 어촌체험활동 등이 널리 알려져면서 관광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은 지난 7월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0일간 운영되며, 이번 '선유도 노을 뮤직 페스티

벌'은 선유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밴드 벨리댄스 공연, 지역 댄스팀과 타악 퍼포먼스,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특히 댄스 디제이 파티로 함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유도에서의 추억 만들기에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조시영 대창 회장, '15년째' 군산교육발전 장학금 기탁

조시영 (주)대창 회장이 올해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군산시는 25일 군산시청에서 김임준 군산시장과 조시영 대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의 교육발전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 재경군산비행우회회장인 조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탁, 누적 장학금만 1억 6천만원에 달한다. 남다른 애항심을 가진 조 회장은 15년 전부터 해마다 시와 모교인 성산초



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날 재단 장학금 기탁과 동시에 성산초 장학금 1천만원, 성산면 경로사업 1천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앞서 지난 5월에는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평생교육 장학

진흥원에 장학금 2천만원을 쾌척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특별지정장학금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군산 출신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조시영 회장은 "고향 후배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전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랜시간 동안 변함없이 군산교육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신규 모집

군산시는 오는 8월 16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매칭해 중증 장애인이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를 주소지로 하는 공공, 비영리 민간기관, 법인·단체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관련서류를 경로장애인과를 방문해 제출, 접수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활동지원기관 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 익산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피해복구 지원

익산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 50여명 중 50% 이상이 호우 피해를 입어 향후 학교급식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 집중복구에 나섰다.

농산유통과는 25일 피해복구가 절실한 시설하우스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시설하우스 속 침수된 농산물을 걷어내고 각종 오물 수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방화기간으로 학교급식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빠른 복구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